

실화냐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화작의 기본적인 개념,
마인드와 함께 7개년 실전연습까지
20일만에 끝내는 유일한 책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지환[나국어] 지음 김지호 편집

실전
화작
풀어봤냐

나 국 어 인 사 말

‘과외생들 복습동영상이나 주자’ 하고 만든 유튜브 해설 썩히는게 아까워 올리면서 활동 시작한 게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외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도 많이 듣고 ‘열정페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대가 없는 투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하고 벅차기도 하지만 도움받고 있다는 말들 하나하나가 힘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실화냐'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여러분께 받은 관심과 감사 인사가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자책으로도 출시하게 되었네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칼럼,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윤지환—나국어 지음

1 | 피램N제 공동저자

2 | 실화냐 저자

3 | 2018~2020 모의고사 고정 1등급

4 | 주간 Wepi 저자

5 | 피램 콘텐츠 제작팀

010-5691-5561 과외 문의 연락주세요

실전 화작 풀어봤냐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지은이 | 윤지환[나국어]

편집 | 김지호

실화냐 목차

0

목차

나국어 인사말

0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2
1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3
2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7

1

목차

01 유형별 화법 개념	018
1 대화	019
2 인터뷰	022
3 토론, 협상	025
4 면접	028
5 발표, 연설	029

2

목차

02 유형별 작문 개념	032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034
2 소개하는 글	034
3 설득하는 글, 건의하는 글	035
4 성찰하는 글	036

3

목차

03 시험 전략 및 공부 방법	038
1 화작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039
2 지문을 읽으며 선지를 예측하는 법 + 노트 공부법	040
3 애매한 선지 넘기기	042
4 답 나오면 짚고 넘어가기	042
5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042

4

목 차

0 4 실전 연습 문제편		044
2015학년도	06	046
	09	050
	수능	054
2016학년도	06	058
	09	062
	수능	066
2017학년도	06	070
	09	074
	수능	078
2018학년도	06	082
	09	086
	수능	090
2019학년도	06	094
	09	098
	수능	102
2020학년도	06	106
	09	110
	수능	114
2021학년도	06	118

5

목 차

0 5 실전 연습 해설편		122
2015학년도	06	125
	09	135
	수능	145
2016학년도	06	155
	09	163
	수능	171
2017학년도	06	181
	09	191
	수능	201
2018학년도	06	211
	09	219
	수능	229
2019학년도	06	237
	09	245
	수능	253
2020학년도	06	263
	09	271
	수능	281
2021학년도	06	289
	빠른정답	298

시작하기에 앞서

" 화작은 어떻게 공부해요"
" 화법 풀이 시간은 어떻게 단축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비문학처럼 읽고 푸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독서 파트의 지문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서술·문장이 수두룩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를 치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화법과 작문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화법과 작문도 그저 잘 읽으면 잘 풀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화법·작문·독서는 같은 줄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평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출제자가 고려하는포인트도 다릅니다.
이는 <0. 화법과 작문의 본질>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풀 때,
‘화법과 작문’처럼 풀어야지, ‘비문학’ 처럼 읽고 풀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화법과 작문’을 ‘화법과 작문’답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장담컨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만큼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수능날 편안하게 화작 10분 컷을 한 채로 문법을 풀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제 칼럼을 통해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을 이루어 낸 만큼,
제 방법이 맞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하나 이상 틀린다면, 13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당신이 화작 공부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화작에서 [3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필연적으로 비문학 <보기> 문제를 맞이어야 합니다.
어느 파트가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파트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다음 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봅시다.

실 화 나 목 차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사랑은 수천 마일을 움직일 수 있다.
인생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이루고 싶은 위치까지 도달하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손에 달려있다.

-스티브 잡스

01 |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2 |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실 화 나 7 개 년 화 작 실 전 해 설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다음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서>에 적힌 화법의 학습방법입니다. 이를 '독서'의 경우와 비교해봅시다.

1)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고려하기
3.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기
4.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기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3.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4.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독서의 경우와 달리, 화법은 지문에 쓰여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라는 요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의 '담화 상황', '화법 내용', '화법 방법'을 고려해야 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화법에 쓰여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우려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화법'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법'은 무엇인가?

화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모든 방법>을 뜻합니다.

즉, 수학능력시험에서 화법 영역은 '말하기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영역이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일차'를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가원은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말하기를 하였는지 평가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 측면도 출제될 수 있지만, 그 말하기 상황의 **핵심(=주제)**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출제합니다. 토론·토의·협상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죠.

항상 담화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핵심정보**와 **세부정보**를 구분하여 독해해야 하며, **출제 포인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봅시다.

지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지만 한 번 살펴보세요.

꼭 선지를 읽고 다음 설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2015 / 06 - 면접

1.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였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였다.
- ④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 ⑤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2016 / 06 - 토론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화법과 같이 작문도 엄연히 비문학과 다릅니다. 아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적혀 있는 작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문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독해봅시다.

그 후 지금까지 작문을 풀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광펜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작문이란?

가치있고 진실한 내용, 참신한 내용을 성실하게 쓴다. 표현을 간결하게 하며 지나치게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개성적인 문체 곧 글쓴이의 성격과 인격, 경험 등이 나타나야 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신선감을 갖게 한다.

글을 쓸 때에는 ②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단어, 문장, 표현법 등을 선택하여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쓴다.

좋은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 글이다. 그 요건은,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짜임새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 표현이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독창적인 표현, 문법에 맞는 글,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 주제의 결정: 무엇을 쓸 것인가,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곧 주제를 결정한다.

제재의 수집: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서 ④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글의 재료를 모은다. 특히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참신한 것이 좋다.

내용의 조직: 제재를 어떻게 배치하고, 줄거리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등을 생각한다. 그 주요 방법으로 자연적 구성과 논리적 구성이 있다. 자연적 구성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⑤ 시간적, 공간적 순서대로 전개하는 방법이다.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 사건의 전개과정 등을 쓸 때 효과적이다. ⑥ 논리적 구성은 글쓴이의 의도대로 논리적으로 문단을 배열한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적절하다. 3단 구성, 4단 구성 등이 있다.

⑦ 집필: 서두쓰기, 본문쓰기, 결말쓰기, 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한다. 서두는 글의 첫머리 부분이다. 독자에게 글의 방향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여 주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쓴다. 본문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이며 서두에서 제시한 내용이 짜임새 있게 펼쳐지는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말은 글의 끝마무리 부분이다. 서두와 본문 중에서 다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인다. 고쳐쓰기는 글 전체에서 말하려는 주제와 서술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일이다.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덧붙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효과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서 글의 순서를 새롭게 구성하는 다시 짜맞추기 등이다.

작문은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 포인트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2.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 설명할게요.

번호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유형별 화법 개념

상어는 물고기중 유일하게 부레가 없다.
부레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조금만 바다 속에 머물러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고 만다.
상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 상어는 바다의 절대제왕으로 거듭났다.

- 도서 '유대인 생각공부(쑤린 지음)' 중에서

- 01 | 대화
- 02 | 인터뷰
- 03 | 토론, 협상
- 04 | 면접
- 05 | 발표, 연설

첫 번째 형광펜을 보니 토론의 **논제(=주제)**를 알 수 있군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협상, 토의, 토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참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에도 집중해야 하죠.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납득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논의범주**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죠.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광펜을 보며 정리해볼까요?

찬성 측 주장 및 근거

- 인간관계 확장
- 삶의 만족감
- 문화 실천의 주체

반대 측 주장 및 근거

- 배타적 경향 → 편협한 이기주의
-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 → 중독 현상
- 문화 실천의 주체 X (찬성 측 근거) → 수동적 소비자
- 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의 사회적 몰약

반대 측의 마지막 근거에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모와 삼촌에 대한 얘기는 **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법과 작문은 **주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유형별 작문 개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호흡을 할 때 멀리 달리지 못하다가
어느새 두 번째 호흡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꿈을 실현하는데 쏟아 부어라.
그러면 자신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 윌리엄 제임스

- 01 | 정보를 전달하는 글
- 02 | 소개하는 글
- 03 | 설득하는 글, 건의하는 글
- 04 | 성찰하는 글

유형별 작문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읽고 계신 이 부분이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문은 대체적으로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에서 작문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각 유형에서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려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작문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작문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습니다.~~가 아니라 정보가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작문은 정보가 많아 보일 뿐 모두 **세부정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문에 서술된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단의 **핵심정보**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말은 **핵심정보**라고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단을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단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를 실행하려면 B를 설정한 후에 C를 클릭하고 D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결국 <A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B, C, D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변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문학이 아니니까요. 문단의 화제를 잡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문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정리해봅시다. **문제 포인트**는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문제 포인트>에서 모두 정리했으니까요.

1. 글의 주제 및 목적 파악
2. 예상 독자 고려
3. 작문 계획과 초고의 비교 (작문 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정말)
4. 세부정보 버리기 → 핵심정보 파악
5. 자료의 적절한 활용

다음 페이지부터 진짜 유형별 작문 개념을 살펴봅시다.

시험 전략 및 공부방법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타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

- 01 | 화작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 02 | 지문을 읽으며 선지를 예측하기 + 노트 공부법
- 03 | 애매한 선지 넘기기
- 04 | 답 나오면 찍고 넘어가기
- 05 |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화작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제가 현역이었던 2018 / 6월부터 4~7번까지 묶여서 화법과 작문이 결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화작이 결합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신유형을 대비해야해!'라는 듯한 여론이 생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신유형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어냈던 저에게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유형인지도 모르고'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출분석을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나오긴 했구나...'라고 느끼긴 했지만

최근 화작을 풀어봐도 이전 신유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유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2020 / 9월에는 통합형도 나오지 않고 다시 단일형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원도 아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냥 통합 유형은 화법 지문 하나랑 작문 지문 하나를 합쳐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유형에 대해 '신유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유형이 아니라 그저 두 유형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융합 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 (나)로 지문이 나뉘어 있을 때 둘을 연계하여 독해하는 것입니다. (가)에 서술된 내용이 (나)에도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문제로 출제될 것입니다.

(가)에서 토의한 작문 계획을 바탕으로 (나)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가)의 초고를 (나)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의 경험에 대해 (나)에서 소감문을 작성할 수도 있구요. 필연적으로 두 글은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점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면 기출이 아까우니, 이는 <4 & 5. 실전연습>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융합 유형이 신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풀이 순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를 읽고 (가)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풀고, (나)를 읽고 (나)에 대한 단독 문제를 푼 후,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세줄 요약

1. 화법과 작문 융합 유형은 신유형이 아니다.
2. 풀이 순서 : (가) 단독문제 → (나) 단독문제 → (가), (나) 융합 문제
3. (가)와 (나)는 연계해서 읽자!!!!

실전 연습 문제편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바라는 부분이 진화되어 왔다.

말은 빨리 달리고 싶어 해서 빨라졌다.

새들도 날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물갈퀴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앨버트하버드, '인생의 서른 가지 질문에 대한해답' 중에서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낸.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뽕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 2: 뽕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뽕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뽕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

학생 3: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뽕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4~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 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도사: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도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도사: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진행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지도사: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진행자: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지도사: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지도사: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물일곱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도사: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 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쉽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쉽숲’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⑤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5.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 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리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보기 2>

㉠ [동영상]
 ○ 내용: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전 점수 평균값	참가 후 점수 평균값
A 직업군	36.6점	12.4점
B 직업군	34.3점	10.8점

※ 32~49점 구간: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 산림 치유원 1개
 ● 치유의 숲 27개

- ①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 ②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군.
- ③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 ④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⑤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 ②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혀야겠다.
- ③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혀야겠다.
- ④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해야겠다.
- ⑤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섬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8~10]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작문 상황: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
 -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나)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림]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 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각적인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A]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8.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①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림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 ①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④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⑤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실 화 나 목 차

5

실전 연습 해설편

자신이 성공하는 내면의 그림을 마음속에 명확히 그리고
지울 수 없게 각인시켜라.
이 그림을 끈질기게 간직하라. 절대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이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신의 상상속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마라.

- 노먼 빈센트 필

실 화 나 7 개 년 화 작 실 전 해 설

5. 실전 연습 해설편

<실전 연습 해설편>

아래 순서에 따라 공부하세요.

- ① 10분 재고 1~10 까지 '문제' 파트를 푹니다.
 - ② 해설을 보기 전에 지문을 다시 보면서 '화법 개념', '작문 개념'에 맞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치세요.** 선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③ 빠른 답지가 없으므로 꼭! 해설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 ④ 해설에는 지문, 선지 해설 모두 있습니다.
 - ⑤ 제 해설과 스스로 잡은 포인트를 비교하면서 사고를 교정해 나가세요!
 - ⑦ 답 선지는 밑줄 표시되어 있습니다.
 - ⑧ 꼭 **형광펜 분석** 혹은 **노트 정리**까지 하세요! 스스로 해보지 않고 해설만 읽고 넘어가면 실력 안 늡니다.
- **노랑 형광펜** -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본질, 출제 포인트, 핵심정보)
 - **빨강 형광펜** - 약하게 읽어도 되는 세부정보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뽕은맛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네요. 뽕은맛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뽕은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발표입니다. 발표 주제는 **뽕은맛이죠?**

<뽕은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하네요. **발표순서를 안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 시간에 기본적인 맛이 미각을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다고 하네요. **청중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보아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잡아야 합니다. 이때 단맛, 짠맛, 신맛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미각'이라는 정보와, 그것을 수업시간에 배웠다는 '경험'만 체크하면 됩니다. 미각을 배운 것에 반해, **뽕은맛은 촉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뽕은맛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뽕은맛이 촉각**이라는 사실은 세부정보가 아니라, **핵심정보**입니다. 발표 **주제**이기 때문이죠.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깊게 설명하는 것이 **세부정보**이죠.

또한 일반적인 미각과 뽕은맛(촉각)을 '비교/대조' 해주셔야 합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해설을 보셔도, 제가 올리는 '비교/대조'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뽕은맛이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하든, 그 과정에서의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든, 텁텁하든, 텁텁한 것이 **뽕은맛**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뽕은맛이 나는 원인>이라고 통쳐서 기억하면 됩니다. 발표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뽕은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털**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준대네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의 단면에 보이는 검은 점들을 청중에게 묻고 있으니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감이나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이라는 예시를 통해 뽕은맛을 설명>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인 타닌이든, 타닌이 침에 녹아서 뽕은맛이 나든, 익어가면서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든 모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예시**로 발표 **주제**인 **뽕은맛**을 설명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하면 되죠.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대네요. 초반에 안내해준 대로 <뽕은맛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 인용을 통해 **뽕은맛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있네요. 감과 녹차에 타닌이 있든, 고혈압을 개선하든, **뽕은맛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든, 속이 불편하든...**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뽕은맛은 몸에 좋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네'라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비문학이 아니잖아요?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상으로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뽕은맛이 다른 맛과 혼합되면 풍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녹차와 홍차에 풍미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녹차랑 홍차라는 **예시**를 통해 풍미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에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더 찾아보라고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출제포인트**죠.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① 이 선지에서 고민하신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지문에서는 **뽕은맛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선지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고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기조대로, **선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평가원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건드리기보다, 선지를 미묘하게 비꼴으로써 학생들의 판단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지를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지에서는 분명히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물었습니다. 화제를 제시했냐고 물은 것은, 발표의 시작 부분에 **뽕은맛의 정의를** 하고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뽕은맛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정의를 나중에 해줬으니 틀린 선지네요.

요즘 평가원의 화법과 작문은 이렇게 정보 자체만 아니라,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까지도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출제 포인트의 활용 목적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 ② 청중과의 소통은 했지만 청중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없었기에, 정보를 추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 ③ 역시 마찬가지로, 청중과 소통은 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중의 대답만 들었을 뿐이죠.
- ④ 청중의 경험을 환기! 처음에 미각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대답을 들었었죠? 아주 전형적인 선지입니다.
- ⑤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②, ③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네요.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냄.	→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 ① 뽕은맛을 소개하는 발표라는 것을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했죠?
- ② '기본적인 맛 vs 뽕은맛'입니다. 차이를 언급했다는 것이 결국 '비교/대조'를 물어본 것이죠?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 ③ 타닌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검은 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지 성분을 분석한 자료는 아니었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아도,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④ 연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뽕은맛의 장점을 설명했죠? 자료의 활용 방안까지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⑤ 녹차, 홍차의 예시를 통해 풍미를 설명했죠? 녹차와 홍차를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풍미를 설명할 때 예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떫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측하며 발표를 들었네요. 모두 출제 포인트입니다.

학생 2 : 떫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떫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떫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발표를 긍정적으로 들었네요. 발표를 듣고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또한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며 발표를 들었습니다.

학생 3 :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2와 같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듣고 있어요. 또한 감에 대해 알게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발표를 들었네요.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학생 1 → ① → 학생 2 → ② ... 이렇게 풀면 되겠죠?

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죠? 물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비교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답을 고를 때 문제점의 지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더 편하기에 먼저 설명한다는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네요. 실전에서는 확실한 것만 지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②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은 감이겠죠? 다만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출제 포인트를 잡아놨으니 우리가 생각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한 선지라면, 과감히 넘기셔도 됩니다. 실화냐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 정도 실력은 쌓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들었을 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써있지는 않네요. 화작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④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학생 1’이죠? 학생 2는 생각 수정만 하고 있습니다.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모두 출제 포인트 내에서 선지가 구성되었네요.

[4~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 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은 인터뷰, 인터뷰 주제는 **산림 치유**네요.

지도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행자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도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도사가 **산림 치유**의 정의와 공식 명칭을 알려주고 있네요.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 등은 모두 **세부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를 해줬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숲 명상, 숲 체조 등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시각 자료를 통해 숲 명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활용 목적!** 중요하죠? 시청자 분들께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잡되, 숲의 짙은 녹음, 맑은 새소리 등은 모두 **세부 정보**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동영상에 대한 소감을 드러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통념**에 대해 묻고 있네요.

지도사: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중·장년층 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참여하네요.

진행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추가 정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진행자: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스트레스에 관해 질문하고, 답하고 있네요. 위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을 물어본 만큼, **스트레스 해소**가 장점으로 나올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한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도 체크해줘야 합니다. 발표든 인터뷰든, 청중이나 대학 상대방의 경험을 묻거나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도사: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이 **스트레스 해소**가 맞네요. 이는 절대로 세부정보가 아닙니다. **주제인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표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과 전, 후를 비교해서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료의 활용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 입증! 이라는 사실만 체크하면 됩니다.

진행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에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네요.

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알려달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포츠클럽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이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료의 활용 목적**에 주목해야겠죠?

진행자: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고, 누리집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합니다. 일일이 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올라오면 돼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출제포인트

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도사: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숲에 대한 비유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는군요.

(나)

실화나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 유형은 (나)를 읽을 때 지속적으로 (가)와 연계하며 읽어야 합니다. (가)에 나왔던 내용이 언급되면, (나)와 화살표로 이어주든, 생각해주든 꼭 연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두 지문으로 나오는 것보다 정보량이 적은 유형입니다. 겁먹지 말고 더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 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발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학생이 느낀 점에 주목하며 읽어야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가)에 언급된 내용이었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인터뷰의 내용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네요.**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은 **세부정보**이며, 우리는 이 문단이 학생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 동기**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쉽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통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가)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중·장년층만 참여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폭의 연령층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 역시 (가)와 연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치유의 숲이든, '쉽숲' 프로그램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니까요. (가)에 나왔던 내용을 체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학생의 모습만 알면 됩니다.

'쉽숲'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니 **마**

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쉽숲'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대화하기'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참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내용이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라는 **학생의 감정**과, 그것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후련해짐>만 잡아내면 됩니다. 또한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숲을 비유했던 (가)의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했다는 정보만 얻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한 학생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세부정보는 버리세요.**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⑤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① 진행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었죠? 한 번에 풀지 못해도 되고,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딱히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당황하지 않고 다른 선지부터 판단했으면 됩니다.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② 진행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부분도 없을 것이구요.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부분과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이 나왔다면 미리 체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체크하지 않았으면 안 나온 거예요.

③ 계속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 운영 장소, 참가 신청 방법 등이요. 세부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④ 스트레스에 관해서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죠? 기억나지 않으면 진행자의 발화를 체크하면서 '경험'을 중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진행자의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참여를 권유했었죠? 체크했었던 포인트네요.

5. <보기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발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려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보기 2>—

㉠ [동영상]
 ◦ 내용 :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전 점수 평균값	참가 후 점수 평균값
A 직업군	36.6점	12.4점
B 직업군	34.3점	10.8점

※ 32~49점 구간 :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군.
-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전형적인 자료의 활용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지금까지 기술된 유형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풀어봅시다.

<보기>부터 분석해야겠죠? <보기 1>에 질문들이 있고, <보기 2>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질문과 자료를 매칭시키는 것이 먼저겠네요.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으로 순서대로 연결되는군요. (가)를 읽으면서 자료의 활용 목적을 스스로 정리했다면 문제에서 바로바로 연결지를 수 있습니다.

- '간접 체험'이라는 워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시청자에게 권유했던 사실이 있죠? 동영상을 통해 숲 명상의 사례를 보여주고, 그것에 참여해 보라는 말이 있으니 충분히 '간접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 동영상이니 당연히 '영상과 소리'를 쓰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네요.
- 산림 치유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표를 통해 제시했었죠? 실제로 수치 변화를 보니 스트레스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④ ㉢은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주의군에 속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등장한 자료가 아닙니다. 항상 자료의 활용 목적에 신경써야 해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나온 정보일 뿐입니다.

⑤ 프로그램 장소를 그림으로 제시했었죠?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화작에서도 문학처럼 허용 가능성을 따져주세요.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혀야겠다.
-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혀야겠다.
-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해야겠다.
-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가)와 (나)를 연계해서 읽었냐는 평가원의 요구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풀 수 있겠네요. ㅎ

- (가)의 마지막에 숲을 비유한 표현이 (나)에서도 사용되었었죠?
- 스트레스 해소가 프로그램 참여 동기였었다고 (나)의 시작 부분을 읽을 때 (가)와 연계해서 생각했었습니다.
-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통념이 (가)와 (나) 모두 나왔었고, 통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나)에 제시되었었습니다.
-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 (나)는 학생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되었다는 것을 중점으로 학생의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글의 주제하고도 동떨어진 것일뿐더러,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⑤ 운영 시기와 장소를 누리집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나)에서 언급되었었죠? (가)에서 안내한 정보를 (나)에서 활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선지입니다. 꼭 (가)와 (나)를 연계하며 읽으세요.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밟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털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작문의 유형 중에서도 결말쓰기 문제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보기>에 나오는 조건을 체크하고, 쉬운 걸 중심으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됩니다.

- 1.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 (느낀 점)
- 2.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

어떤 걸로 선지를 먼저 걸러낼지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다짐'이 더 형식적인 측면이라 생각해서, 2번으로 먼저 거르겠습니다. 1번으로 하려면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가 맞는지, 체크 해봐야하니까요. '다짐'은 누가 읽어도 형식적으로 드러나니, 2번부터 합시다.

- ① 다짐 같아 보이는 부분이 없네요.
- ② 효과는 느꼈지만 다짐은 없습니다.
- ③ 힘들면 숲에 가야겠다고, 다짐이 있습니다.
- ④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있네요.
- ⑤ 내 모습을 아낀다는 다짐이 있네요.

이제 1번으로 걸러봅시다. (나)를 잘 읽었다면 글손이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련하게 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에 주목해서 읽었다면 말이죠.

- ③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참여하기 전, 후의 느낀 점이 아니죠?
- ④ 집에 돌아와서 일상을 보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⑤ <속상해하던 = 스트레스>에서 <마음이 풀리고 성격을 인정 = 후련해짐>이네요.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답이네요.

(8~10)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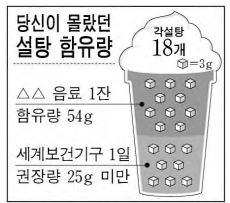
(가) 학생의 메모

- 작문 상황 :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
 -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인포그래픽이 글의 주제인 것 같고, 교내 학생들이 예상독자이군요. 또한 작문 계획에 ㉠~㉤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 작문 계획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를 읽으면서는, ㉠~㉤이 나왔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나)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든, 시각적인 형태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를 해쳤고, 그것을 통해 글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벌써 나왔네요.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대하였다.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 등장했네요. 보통 ㉠~㉤을 순서대로 제시해주는데, 조금은 특이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은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포그래픽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그냥 많은 정보를 쉽게 제시하니까 유용함.>정도만 잡고 갑시다. 소셜 미디어도 그에 일조했네요.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그때 올라와서 확인합니다.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픽토그램과 비교/대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라는 사례를 통해 픽토그램을 설명합니다. ㉢도 나왔네요. '비교/대조'가 나오니, 집중해야겠죠? 올해의 출제 포인트니까요. 픽토그램은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인포그래픽은 쉽나 봅니다. 이를 예시

를 통해 제시합니다. 컴퓨터가 어찌고 저찌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인포그래픽이 더 낫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됩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인포그래픽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과 비교/대조하고 있네요. 글이 하나하나 읽어야 한다는 점, 인포그래픽은 그에 반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그냥 인포그래픽이 글보다 낫다는 점만 체크하면 돼요. @이 나왔네요. 픽토그램과 마찬가지로. 논문이 나오는 것을 보니,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네요.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글과 '비교/대조'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핵심정보를 잡으세요. 각 문단이 말하는 바를 알아내야 합니다.

시각적인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든, 단순하든, 최소한이든 등 하나도 절대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입이 아프네요. 실전에서 저 정보들을 다 챙겨가려고 하셨다면 아직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요소와 주의할 점> 정도로 핵심정보를 정리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의 사용을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짓네요. 이번 화작 지문은 모두 무엇인가를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수능 때도 무언가를 권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낼지 모르니 집중해봅시다! 한 선지라도 더 빠르게 챙겨가면 좋잖아요 ㅎㅎ

8.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유형에 대한 부분은 없었죠?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요소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9.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①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항상 나오는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키워드를 잡고 천천히 비교하면 됩니다. <보기>가 초고이므로 <보기>에서 [A]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항상 무엇부터 볼지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기>를 보니 단순히 인포그래픽의 전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네요. 그에 반해 [A] 부분은 인포그래픽을 학생과 연결지어서, 학생들이 발표나 보고서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나 보고서에 있어서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활용하라는 말이군요. 전망에서 학생, 발표, 보고서, 권유 등의 키워드로 바뀌었다는 점을 체크하고 선지를 살펴봅시다. 키워드가 없으면 과감히 거릅니다.

- ① 탐구해야 할 문제?? 문제는 없습니다.
- ② <예상 독자 = 학생>이죠? 예상 독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결국 발표와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 ③ 균형 잡힌 관점? 인포그래픽을 너무 칭찬한 것에 대해 단점도 쓰라는 걸까요? 학생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가 뭘까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문제랑 전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심지어 문제도 없습니다.
- ⑤ 요약은 절대 아니죠.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리판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리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정보 알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읽고 쓴 글이므로 글의 **주제**인 인포그래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야겠네요. 90%와 같은 수치는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알리판을 학생들이 안 본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리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리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 **건의문**이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것을 권유하는지 중점으로 읽어야겠죠. 알리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게 해달라는 권유네요. 지문과 연계해서 읽어야겠죠? (가)·(나) 유형처럼요. 글에서 나왔던 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글쓴이가 지문에 나왔던 논문을 통해 인포그래픽을 설명했다는 점만 잡으면 됩니다. 또한 인근 학교의 **사례**가 나오는데, 역시 사례를 통해 인포그래픽의 효과를 설명했다는 점만 잡으면 되지, 학교 신문이든, 3배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선지가 세밀하게 나오니 **꼼꼼하게, 한 번에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 ③ 알리판의 정보를 평가하지는 않았죠? 그저 알리판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일 뿐입니다.
- ④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을 설문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리판을 읽나, 안 읽나에 대한 설문조사였죠? 틀렸습니다.
- ⑤ 인터뷰가 어딴죠? 설문조사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도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리판에 대한 내용이구요. ④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 ①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리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④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⑤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① 인근 학교 사례를 통해 인포그래픽의 효과를 말했죠? 답입니다.

② 지문에 나왔던 논문에 대한 선지네요. 연계해서 읽었다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설명했지, 이를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 역시 **자료의 활용 목적**에

“

고정 1등급은 실전에서 화작을 어떻게 푸는가?
화작 10분 컷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